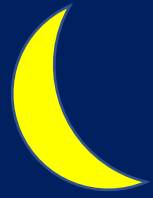


“달에게 짓다”



“달에게 짓다”(간조시샤·하쿠지쓰샤)는 1917년 2월에 간행된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발표된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시단에 큰 충격을 주어 사쿠타로의 시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집에는 사쿠타로가 경애하는 기타하라 하쿠슈와 절친한 친구인 무로 사이세이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달에게 짓다”에 수록된 시는 기존의 문어체(문장어)로 쓰인 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어체(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의 자유로운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영향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쿠타로는 이 시집의 서문에 ‘시는 신비하지도 상징적이지도 무섭지도 않다. 시는 그저 아픈 영혼의 소유자와 고독한 인간의 쓸쓸한 위로이다’라는 말로 날이 선 섬세한 감성으로 고독함을 표현했습니다.



“달에게 짓다”(1917 간조시샤·하쿠지쓰샤)